

「玉簫系小說」研究*

鄭 相 珍**

차 례

I. 서 론	3. 이대와 영웅담구조
II. 「옥소계소설」의 형성과정	4 구조의 정체성
III. 「옥소계소설」의 구조와 그 정체성	IV. 「옥소계소설」의 의미지향과 작가 의식
1. 작품의 서사단락	
2. 일대와 기봉담구조	V. 결 론

I. 서 론

천여 편을 상회하는 고전소설 중에는 문학적 소종래나 작품의 의미지향이 유사한 친연적·아류적 작품들이 많다. 본고에서 문제 삼고자하는 <옥소기연>·<강릉추월>·<금강취유> 등 세 작품도 '옥소'라는 神物¹⁾이 남녀 결연 및 이산된 가족의 재합 매체로써 기능하는가 하면, 문학적 소종래·서사구조·의미지향 등이 거의 일치하는 고전소설이다. 따라서 이 세 작품을 하나로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논의의 과정에서 구체화되겠지만 여기서 '神物'이란 말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범인로서는 법쩍키 어려운 영묘한 물건이란 의미를 지닌다.

묶어 「옥소계소설」이라 명명하면서²⁾ 본고의 논제로 삼는다.

고전소설의 형성과 발달에 중국소설의 영향이 지대함은 주지하는 터이다. 게다가 중국소설을 번역·번안한 작품들도 상당하였던 바, 이런 현상은 고전소설이 활자본으로 간행·유통되던 근대전환기까지 계속되었다. 본고에서 주목한 「옥소계소설」은 중국소설을 문학적 원천으로 하면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근대전환기를 전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이다.

「옥소계소설」형성에 영향을 준 중국소설은 明末 馮夢龍(? ~1645)이 편찬한 『警世通言』소수의 <蘇知縣羅衫再合>(앞으로 편의상 <나삼>이라 함)이며, 이는 名義가 암시하는 것처럼 소지현 가족의 이산과 재합을 서사화한 작품이다. 그러나 「옥소계소설」은 이를 소종래로 하면서도 고전소설의 전통적인 구조 양식을 차용하여 새롭게 변개,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서사적 구조는 물론 의미지향이 <나삼>과는 다른 독창적 성격의 작품이다.

이러한 「옥소계소설」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나삼>계 소설의 번안 양상 및 그들 상호간의 문제,³⁾ 해외원정군담류의 형성 배경 및 작가의식 문제,⁴⁾ 기봉류소설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남녀의 결연 문제⁵⁾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옥소계소설」이 함께 거론되었으며, 그 밖에도 단편적이긴 하지만 중국소설과 고전소설과의 영향 관계를 논하면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옥소계소설」만을 종합적·집중적으로 천착한 것이 아니라 는 데 한계가 있다.

「옥소계소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을 만한 작품이다. 서사구조가

2) 고전소설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 이런 명칭이 사용된 바 없다. 다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세 작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명칭을 찾아보니 적당하다 판단되어 필자가 편의상 붙인 것으로 고전소설의 하위 유형 명칭으로 사용한 말은 아니다.

3) 이명구, 이조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대동문화연구』5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8); 서대석,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소설연구, 『동서문화』5집(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73); 심재숙, <소운전>-<월봉기>계 작품군의 유형변이와 담당층에 관한 연구(고려대 석사논문, 1990); 이필우, <소지현나삼재합> 번안소설의 실상과 상호관계(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4) 이영신, 해외원정 군담소설 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2).

5)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소설 연구』(이희출판사, 1995).

중국소설인 <나삼>의 구조·기봉담구조·영웅담구조 등이 혼용되어 있다는 점, 두 世代의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 무대 및 등장 인물이 자국화되어 있다는 점, 공간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의 영웅이 중원에서 무공을 세운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옥소계소설」은, 모든 고전소설이 다 그러하듯 내재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며, 필자가 관심을 갖게 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옥소계소설」의 형성과정, 구조,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식 등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여 보기로 한다.

Ⅱ. 「옥소계소설」의 형성과정

「옥소계소설」의 문학적 원천은 중국소설인 <나삼>이다. 그런데 <나삼>이 소종래가 되어 형성된 고전소설은 「옥소계소설」 외에도 <월봉산기>·<월봉기>·<소운전>·<소학사전>·<봉황금> 등 수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옥소계소설」의 형성 문제는 이들 작품의 형성과 병행하여 논의되어야 할 형편이다.

<나삼>이 소수된 『경세통언』은 天啓 甲子年(1624)에 간행되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전하지 않고,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日本 名古屋 蓬左文庫에 소장된 것을 영인한 稀貴珍本이다.⁶⁾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발견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의 유입 여부조차 불명확한 실정이다. 그러나 『三言』이나 『二拍』, 그리고 이의 選本인 『今古奇觀』 등에 소수된 작품들이 저본이 되어 형성된 고전소설은 <나삼>계 소설 외에도 여러 편이 있으며,⁷⁾ 이 중에서 특히 <나삼>계 소설 8편을 비롯한 <제마무전> 등이 『삼언』에 소수된 작품의 영향에서 형성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경세통언』을 비롯한 이른바 三言小説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을 것임은 부인키 어렵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6) 서대석, 앞의 논문, 186쪽.

7) <이태백실기>·<채봉감별곡>·<박문수전>·<양산백전>·<제마무전>·<몽결초한송> 등을 들 수 있다.

것인데, <나삼>계 소설 중의 하나인 <소운전>이란 작품명이 『象胥奇聞』에 등재되어 있다.⁸⁾ 주지하다시피 『상서기문』은 일본 역관이 조선의 사신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1794년에 간행된 것인데, 여기에 <소운전>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은 적어도 1794년 이전에 삼언소설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경세통언』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이로 말미암아 <나삼>계 소설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8편이 제각기 <나삼>을 저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세통언』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더라도 그 수량은 지극히 한정적일 것이고, 게다가 그 전질이 우리말로 번역·출판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의 독자층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문인 문어체소설이면 몰라도 백화체소설에 양반사대부층이 관심을 두었을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백화문을 아는 중인계층인 역관들에 의하여 수입·애독되었을 것으로 보아지는 바, <나삼>계 소설도 그들 중의 누군가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이때 이루어진 작품은 번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내용의 것이라 하겠다. 역관들로서는 백화체의 중국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는 이상의 문학적 의도같은 것은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이렇게 번역적 차원의 작품이 먼저 형성·유포되자 이를 저본으로 하여 유사한 내용의 이본이 생기고, 나아가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또 다른 작품, 이를테면 독창적 성격의 작품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면 역관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형성·유포된 번역적 차원의 작품은 무엇일까?

<나삼>과 <나삼>계 소설 8편의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⁹⁾

(가) <나삼>의 내용과 거의 일치되는 것 : <소운전> · <월봉기> · <소학사전>¹⁰⁾

8) “朝鮮小說 張風雲傳 九雲夢 崔賢傳 張朴傳 林將軍忠烈傳 蘇大成傳 蘇雲傳 崔忠傳…” (小田幾五郎, 『象胥奇聞』下, 216쪽).

9) 이명구·서대석·이필우 등에 의하여 세밀하게 대비·분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앞의 논문, 참조).

- (나) <나삼>의 구조와 거의 일치하나, 후반부에 주인공의 혼사장을 첨가함으로써 애정소설적 면모를 보이는 것 : <월봉산기>¹¹⁾
- (다) <나삼>의 구조와 거의 일치하나, 등장인물명이 다르고 記述手法面에서 편차를 보이는 것 : <봉황급>¹²⁾
- (라) <나삼>의 구조를 용해하여 독창적으로 개작한 것 : <강릉추월> · <금강취유> · <옥소기연>

의 네 계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네 계열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번역적 차원의 작품은 (가)계열, 곧 <소운전> · <월봉기> · <소학사전>중의 어느 것일 게다. 그 하나가 형성되자 그와 유사한 내용의 다른 두 작품이 생기게 되고, 이들이 다시 저본이 되어 (나) · (다) · (라)계열의 작품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가장 먼저 형성된 (가)계열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7편은 <나삼>의 간접적 영향에서 이룩된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면 『옥소계소설』의 저본이 된 것은 (가)계열 중 어느 것이며 언제 형성되었을까?

<소학사전>을 저본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바,¹³⁾ 이는 세창서관본을 텍스트로 할 경우에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세창서관본이 작품의 뒷부분에 군담모티프를 첨가하여 주인공의 영웅상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옥소계소설』과 친연

- 10) 박문서관본 <소학사전>의 판권장에 ‘소학사전일명소운전’이라 하여 <소운전>으로도 이칭되었나, 내용을 보면 <소운전>은 <소학사전>보다 오히려 <월봉기>에 가깝다. <소운전>과 <월봉기>에는 작품의 말미에 주인공의 혼사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소학사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되겠다.
- 11) 기왕의 논의에서 <월봉기>와 <월봉산기>는 동일한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활자본의 경우를 보면 <월봉기>에서 2회(전 9회 중 8~9회)로 처리되어 있는 주인공의 혼사문제가 <월봉산기>에서는 그것을 확대하여 11회(전 22회 중 12~22회)에 걸쳐 심도있게 다루어져 애정소설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월봉산기>는 <월봉기>와 동일한 또는 이본적 차원의 작품이 아닌, <월봉기>를 저본으로 하여 애정소설로 개작한 별개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2) <나삼>에 비해 여성 수난상이 확대·부연되었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으나 회상설명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이 작품을 신소설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서대석, 앞의 논문, 214~221쪽 참조).
- 13)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교학사, 1983), 326~334쪽.

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창서관본 <소학사전>은 1957년에 간행된 것으로 「옥소계소설」보다 훨씬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향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세창서관본보다 先本인 필사본¹⁴⁾이나 박문서관본일¹⁵⁾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두 판본은 군담모티브가 없고 서사적 내용이 <나삼>은 물론 <월봉기>나 <소운전>과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활자본의 경우 「옥소계소설」은 1915년에 간행된 데 반하여 박문서관본 <소학사전>은 이보다 2년후인 1917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양자간의 수수관계는 생각키 어렵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필사본이나, 「옥소계소설」 중 <강릉추월>의 필사본은 30여종이 전하는 것에 반하여 <소학사전>의 그것은 1종 밖에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이 또한 그 개연성이 어렵다 하겠다.

이제 남는 것은 <소운전>과 <월봉기>인데, 여기서 <월봉기>을 그 저본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월봉기>은 방각본으로 간행되었고 필사본으로 한글본 뿐만 아니라 한문본도 있는 것으로 보아¹⁶⁾ <소운전>보다 널리 유포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이다. 그러나 <소운전>도 방각본만 없을 뿐이지 수종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더욱이 『상서기문』에 소개되어 있을 정도이고 보면 <월봉기>보다 오래 전에 형성·유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게다가 극히 지엽적이긴 하지만 題名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월봉기>의 '月峰'은 山名인 데 반하여 <소운전>의 '蘇雲'은 人名으로, 이는 <소운전>만이 아닌 <나삼>과 <월봉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작가가 우리말로 옮겼다 뿐이지 내용상의 출입이 극소한 작품을 만들면서 그 제명을 원전과는 판이한(이를테면 <월봉기>같은) 제명보다는 '주인공명+전'식으로 명명되는 고전소설의 보편적인 제명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상은 어디까지나 심증적인 추측에 가까울 뿐 그렇게 쉽게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월봉기>와 <소운전> 중 어느 하나일 것이

14) 김광순 소장본 1종으로 『한국고전소설전집』35(경인문화사 영인, 1994)에 수록되어 있다.

15) 필사본 및 박문서관본이 세창서관본보다 先本인 이유는 전자의 경우 '·'가 사용되었는데 반하여 후자에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간행 시기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6) 필사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본된 한글본 1종, 한문본 2종이 있다.

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계속해 보기로 한다.

「옥소계소설」이 <월봉기> 또는 <소운전>을 저본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상정할 때 남는 문제는 세 작품 상호간의 관계이다. 이를테면 <강릉추월>·<옥소기연>·<금강취유> 중 어느 것이 <월봉기> 또는 <소운전>을 저본으로 하여 먼저 형성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변개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각기 독자적 영향하에서 형성된 것이나 하는 점이다.

항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옥소계소설」은 시대·공간적 배경 및 등장인물의 자국화와 더불어 구조 및 의미지향이 여타 <나삼>계 소설과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여타 <나삼>계 소설과의 변별적 자질을 가지면서 그들 간에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진 세 작품이 제각기 <월봉기> 또는 <소운전>을 저본으로 하여, 독립적·대등적 입장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세 작품이 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가 다른 것의 저본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곧 <월봉기>나 <소운전> 중 어느 것이 저본이 되어 「옥소계소설」 중의 하나가 형성되고 이것이 저본이 되어 나머지 두 작품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형성된 것이 무엇일까?

<옥소기연>과 <금강취유>는 활자본만 전해지는데 반하여 <강릉추월>은 활자본을 비롯하여 무려 30여종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¹⁷⁾ 필사본과 활자본이 병존하는 작품과 활자본만 있는 작품의 경우 그 형성시기에서 전자가 앞선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감안할 때, <강릉추월>이 먼저 형성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활자본 고전소설이 나오기 시작한 근대 전환기로 보아진다. <강릉추월>의 필사본이 30여종에 이른다는 것은 이 작품의 인기도를 짐작케 하는데, 만약 방각본 시대에 창작되었다면 방각본으로도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방각본이 없다는 것은 이 소설이 방각본 시대 이후에 형성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게다가 특히 주목되는 바는 활자본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필사본에서조차 ‘황성’ 대신에 ‘경성’이란 용어가

17) 김광순 소장 8종, 고려대 도서관 소장 4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3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종, 김동욱 소장 1종, 박순호 소장 11종 등 필자가 조사한 것만도 30여종에 이른다.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경성'이란 말은 1910년 10월 1일 總督部令 第二號로 漢城府가 京城府로 개칭되면서 생긴 일제시대 서울의 명칭이다. 이처럼 1910년 이후에 와서 범칭되었을 '경성'이란 용어가 필사본이나 활자본에 두루 나온다는 것은 <강릉추월>이 근대전환기에 형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필사본 <강릉추월>이 근대전환기에 형성되어 독자의 인기를 획득하자 그 대로 활자로 출판되었고, 한편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저본으로 하여 기본 구조는 살리되 인물명·지명·시대 및 구조의 부분적 변경도 하면서 여기에다 제명도 새로이 붙여 출판한 것이 <옥소기연>이고 <금강취유>라 생각된다. 따라서 <강릉추월>은 저본(<월봉기> 또는 <소운전>)의 확연한 개작으로 그 독창성이 인정되는 작품인 반면에, <옥소기연>과 <금강취유>는 <강릉추월>의 부분적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조 및 의미지향면에서 편폭이 심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은 <강릉추월>과 이본적 차원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작품이다.

Ⅲ. 「옥소계소설」의 구조와 그 정체성

1. 작품의 서사단락

「옥소계소설」중 먼저 형성된 작품이 <강릉추월>(앞으로 <강>로 약칭함)이고 이를 저본으로 하여 <옥소기연>(앞으로 <옥>로 약칭함)과 <금강취유>(앞으로 <금>이라 약칭함)가 형성되었을 개연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세 작품은 내용에서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작품 상호간의 부분적·지엽적인 차이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옥>과 <금> 사이에는 등장 인물명이 상이한 점만 제외하면 그 내용적 편차가 거의 없는데 반해, <강>과 <옥>·<금> 간에는 상대적으로 그 폭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옥>과 <금> 간에는 상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강>에 대한 <옥>·<금>의 독창적 창의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재와 구성, 의미지향 등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작품 간의 편차를 무시하고 공통적

인 요소만을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그것에 내포된 의미를 고구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면 <강>·<옥>·<금>을 이야기가 전개되는 순차에 따라 단락을 분절하고 각 단락의 내용을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상화하여 명기해 보기로 한다.¹⁸⁾(작품 상호간의 내용적 편차는 논의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보이기로 한다).

- (1) 주인공¹⁹⁾의 부친이 仙人으로부터 神物을 얻다.
- (2) 주인공의 부친이 뱃놀이 중 풍파를 만나 어느 섬에 漂着하다.
- (3) 주인공의 부친이 표착한 섬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국 여인을 만나다.
- (4) 주인공 부친이 중국 여인과 혼인하다.
- (5) 주인공의 부친이 外職을 제수받고 善治하다.
- (6) 주인공의 부친이 內職으로 귀임 중 해적의 습격을 받다
- (7) 주인공의 부친이 외국 땅에 표류·정착하고, 모친은 화를 면하기 위해 삭발하고 중이 되다.
- (8) 주인공이 절에서 태어나나 모친과 헤어져 해적의 피수와 인연을 맺게 되다.
- (9) 주인공이 해적의 피수로부터 부친이 잃었던 옥소를 받다.
- (10) 주인공이 과거응시차 上京 중에 금상산을 유람하다가 조부모와 조우하다.
- (11) 주인공이 장원 급제하여 어사가 되다.
- (12) 주인공이 어사로서 巡撫 중에 자기의 내력을 알게 되다.
- (13) 주인공이 원수인 해적을 소탕하고 모친·조부모와 상봉하다.
- (14) 주인공이 결혼하다.

-
- 18) <강>은 1917년 덕흥서림에서 간행한 활자본(구활자 『고전소설총서』9, 민족문화사, 1983에 영인·수록되어 있음)을, <옥>은 1915년 친구서림에서 간행한 활자본(앞의 책에 영인·수록되어 있음)을, <금>은 1915년 동미서시에서 간행한 활자본(앞의 책, 권10에 영인·수록되어 있음)을 텍스트로 하였다. <옥>·<금>은 활자본만 있기 때문에 텍스트 선정에서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강>은 30여종의 필사본이 있어 사정이 다르다. 특히 필사본과 활자본 간에 내용의 출입이 심한 편인데(구체적 사정은 심재숙, 앞의 논문, 39~40쪽 참조), 여기서는 <옥>·<금>과 내용이 유사한 활자본을 텍스트로 택했다.
- 19) 「옥소계소설」은 二代에 걸친 이야기로서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일대(부친)가 될 수도 있고 이대(아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대를 주인공으로 보고 정리하는 바, 그렇게 한 사정은 논의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 (15) 주인공이 중원에서 옥소가 매개가 되어 부친을 찾게 되다.
- (16) 주인공이 중원에서 무공을 세워 이름을 빛내다.
- (17) 주인공이 부귀를 누리다 승천하다.

「옥소계소설」이 중국소설 <나삼>의 번안물인 <월봉기>(또는 <소운전>)를 저본으로 하여 형성된 것임은 언급된 바 있다. 저본이 된 <월봉기>(또는 <소운전>)는 그 내용이 <나삼>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위에서 보인 서사단락 (5)~(15)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구되어 있다. 따라서 「옥소계소설」은 이를 중심에 놓고 앞에는 주인공 부친의 신물 획득 및 결연담((1)~(4)), 뒤에는 주인공의 중원에서의 무공담과 승천((16)·(17))을 첨가, 재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첨가된 (1)~(4)·(16)·(17) 단락이 서사의 전체적 분량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무대 및 인물의 자국화와 더불어 「옥소계소설」을 저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와 의미를 획득케 하는 결정적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으나, 우선 주목되는 것은 (1)~(4)·(16)·(17) 단락이 첨가됨으로써 「옥소계소설」을 작품적 유형 및 의미지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별개 서사체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보인 서사단락을 사건의 추이에 따라 다시 축약하면,

- (가) 주인공 부친의 옥소 취득
- (나) 주인공 부모의 결연
- (다) 주인공 부모의 이산과 주인공 탄생
- (라) 주인공의 복수와 가족의 재합
- (마) 주인공의 중원에서의武功

등 여섯 개 단락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가)·(나)가 주인공의 부친이 주체가 된 이야기라면, (다)는 주인공의 부친과 주인공이 혼합된 이야기이고 (라)·(마)는 주인공이 주체가 된 이야기다. 「옥소계소설」의 이러한 짜임은 곧 작품을 (가)·(라)를 중심 내용으로 한 것과, (다)·(마)를 중심 내용으로 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전자에 주목하면 아버지가 서사적 주체가 되면서 옥소를 매개로 하여 남

너 및 가족 구성원 간의 '만남 - 분리 - 재합'을 서사화한 기봉담구조의²⁰⁾ 작품이 되겠고, 후자에 주목하면 서사의 주체는 아들이 되면서 그의 영웅성을 형상화한 영웅담구조의 작품이 되겠다.

이상에서처럼 「옥소계소설」이 성격을 달리 하는 두 개의 구조가 통합·조화된 작품이라는 전제에서 작품을 기봉담구조적 측면과 영웅담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조 양상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옥소계소설」의 구조의 정체성을 어렵해 보기로 한다.

2. 일대와 기봉담구조

기봉류소설은 남녀결연을 문제삼고 있는 유형이다. 이 중에서 神物이 결연 매체로써 등장하는 작품들은²¹⁾ 주인공의 '신물획득 - 초합 - 분리 - 재합 - 죽음·승천'의 순으로 전개되면서, 남녀주인공의 초합 및 재합이 신물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으로 결구되어 있다. 이처럼 기봉담구조에서 신물은 남녀 주인공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그 서사적 기능이 대단한데, 「옥소계소설」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옥소계소설」에 등장하는 신물은 표제가 암시한 대로 '옥소'로써 이의 조화력에 의하여 주인공의 부모가 인연을 맺게 되는가 하면, 이산된 가족도 재합하여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옥소는 범인으로서 가지는 소리 낼 수 없는, 다만 天定의 관계에서만 획득되고 소리도 낼 수 있는 천상적·초월적인 신물이다. 옥소가 찬상적·초월적 신물임은 그것이 초월자에 의하여 주인공 부친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에서 짐작케 하는데, 다만 그 계기를 보면 작품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 <강>

20) 여기서 말하는 '기봉담구조'란 남녀결연이 신물에 의하여 성취되는 기봉류소설의 구조를 말하며, 앞으로 '기봉류소설'이라 칭할 때도 이에 다를 아니다. 기봉류소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소설 연구』(이희출판사, 1995)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고도 이를 참조하였음.

21) 양혜란은 이를 '신물점지형'이라 명명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옥환기봉>·<옥소기연>·<삼생기연>·<용매기연>·<쌍주기연>(이상은 천강형), <명주기봉>·<쌍천기봉>(이상은 비천강형), 등을 들고 있다(앞의 책, 26~27쪽 참조). 여기서 그는 <강릉추월>과 <금강취유>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기봉' '~기연' 등의 題名을 취하고 있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에서는 이춘백이 전생애 사용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준다고 하였고,²²⁾ <옥>에서의 장언경과 <금>에서의 정덕현은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옥소를 능숙하게 붙었다는 이유 때문에 초월자로부터 옥소를 부여받고 있다.²³⁾ <강>의 경우 옥소와 그 획득자 간의 관계가 천정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옥>·<금>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 그 관계가 '천정적'이나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서사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인으로서의 소리도 낼 수 없는 신물을 그들이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능숙하게 붙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초월적 존재에 의하여 傳授되었다는 점 등은 양자 사이에 '천정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인연이 있음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획득된 옥소의 조화력에 의하여 주인공의 부모는 인연을 맺게 된다. 주인공의 부친은 뱃놀이를 하면서 옥소를 붙자 갑자기 광풍이 대작하여 표류, 절도에 표착하게 되고, 그 곳에서 역시 같은 처지의 중국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강>에서 이춘백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남자와 혼례를 치루고, <옥>의 장언경과 <금>의 정덕현은 부모의 허락과 주선하에 혼례를 올리는 것으로 결구되어 있어 작품 간에 절차상의 편차를 보이거나, 그 어느 쪽이든 배우자의 선택이 혼인당사자에 의해서 행사되었고 부모 또한 아무런 저항없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가문을 중심으로 부모들의 합의에 의하여 혼사가 결정되는 조선조의 공식적·합법적 혼속과는 크게 괴리된다. 그럼에도 혼사가 성취된 것은 그들의 만남이 천정한 운명적인 것임

22) “소년왕 너 일즉 그디와 한가지로 왕모 요지연회에 참례하였다가 그디는 시비 쌍성과 희롱함으로 인간에 적강하였으나 기시에 창화하던 강룡추월 옥통소를 이겼나냐 너 오래 맛따두었더니 고주를 차져 도로 전하기 위하여 금야에 이에 와 기다리노니”(앞의 책, 4쪽).

23) <옥> : (장언경이 7일 동안에 12곡을 습득하자)“료인이 칭찬왈 너는 던하괴지로드 너 이 옥소를 가지고 스퉴에 주류하야 그 임자를 츠즈 전코져하나 엇지 못하였더니 이제 이곳에 와 너를 맛나니 이는 반다시 혼놀이 지시하심이라”(앞의 책, 5쪽).

<금> : (정덕현이 옥소를 잘 붙자)“노인이 그디 혼번 비화 현묘한 곡을 능통하였으니 괴이호도다 호고 인하여 그 옥저를 주며 왈 일후 반다시 쓸곳이 이시미라”(앞의 책, 4쪽).

을, 혼인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물(특히 부모)들이 인식하였기 때문인데, 그렇게 인식하게 된 계기로 가능한 것이 다름아닌 옥소의 조화력이다. 이렇게 볼 때 옥소는 주인공 부모의 만남의 계기를 마련해 줌과 아울러 그 만남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기능도 한 셈이다.

주인공의 부모는 그들의 만남이 유별났기 때문인지 금슬이 지극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해적의 피습을 받아 부부 및 부모·형제와도 분리되는 고통을 겪는다. 신물 매개를 택하고 있는 기봉류소설에서 초합을 성취한 남여주인공은 반드시 부부이별을 겪게 된다는 등식이 「옥소계소설」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된 셈이다. 게다가 이러한 와중에 출생한 주인공이 제삼자에 의하여 양육됨으로써 모자 간에도 분리가 발생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에 이른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지양하고 이산된 가족을 재합체하는 행위의 주체는 주인공이다. 제삼자에 의하여 양육되고 성장한 그는 과거에 금제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 이 때 자기의 내력을 알게 된 주인공은 부모의 원수에 대한 복수는 물론 이산된 가족의 재합에 심력을 쏟는다.

복수 및 재합의 주체적 인물이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의 부친이 아닌 주인공으로 설정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 재합의 매체로 기능하고 있는 옥소가 주인공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해적의 수중에 있었던 옥소는 주인공이 해적과 인연(해적의 딸과 혼인)을 맺게 됨으로써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매체가 되어 모자 및 부자의 만남이 성취된다. 주인공은 지극히 우연한 기회에 옥소를 볼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그의 모친이나 부친이 옥소의 실체 확인과 더불어 그것의 획득 내력을 듣고 서로가 모자, 부자간임을 알게 된다.²⁴⁾ 이처럼 옥소가 매개가 되어 생사마저 몰랐던 가족들이 모이게 됨으로써 기봉담구조로서의 「옥소계소설」의 서사는 종결된다.

이상에서 「옥소계소설」의 구조 양상을 기봉담구조의 측면에서 일별하였는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바는 옥소가 신물 그 자체이자 남녀결연의 매체로

24) 단 <옥>·<금>에서 모자간 만남의 계기는 ‘冤訴’에 의지하고 있다. 어사가 순행한다는 말을 들은 주인공의 모친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울리게 되고 이를 본 어사는 자기의 내력은 물론 원소자가 모친임을 짐작하고 찾게 된다.

총실히 기능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앞서 일별한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것은 전후 사정에서 유추한 표면적인 것이고, 보다 이면을 탐색해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기봉류소설로 범칭되는 일군의 작품 중 <옥환기봉>·<삼생기연>·<용매기연>·<쌍주기연>·<명주기봉>·<쌍천기봉> 등은 신물이 결연매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옥환기봉>에서 옥환, <삼생기연>에서의 옥소, <용매기연> 및 <쌍주기연>에서의 구슬 등은 「옥소계소설」의 옥소와 마찬가지로 그 원천을 천상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 신물의 성격이나 서사적 기능이 「옥소계소설」에서 옥소의 그것과는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삼생기연>을 보면 초월적 존재(道人)가 위명(남주인공)에게 옥소를 직접 전달하면서 今生宿緣을 이를 신물임을 알려주고,²⁵⁾ 이런 점이 양소저(여주인공)에게도 몽중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²⁶⁾ 따라서 위명과 양소저는 상호 신물소유자임의 확인과 더불어 주저없이 인연을 맺는데, 이러한 사정은 <옥환기봉>·<용매기연>·<쌍주기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옥소계소설」에서는 선인이 주인공의 부친에게 옥소를 전수하면서 그것이 남여결연의 매체임을 암시조차 하지 않았고, 더욱이 주인공의 모친은 옥소의 존재마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만남이 천정적·운명적임은 저간의 사정에 의한 유추적 결론이자 남성 쪽의 논리에 의한 것이고, 여성 쪽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의 만남이다. 이는 남자의 청혼에 대한 여자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강>에서 이춘백의 청혼에 조낭자는 부모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혼인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불응하다가 마고할미와 시비 춘랑이 춘백과의 혼인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들어 끈질기게 설득함에 따라 자포자기적 상태에서 응하고 있으며, <옥>·<금>의 소소저는 무인고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어

25) “던기를 가히 누설치 못하리라 이 옥소는 군조의 구물노 금심숙연을 이를지라 그대는 모로미 이 옥소를 부즈런이 너혀 삼송괴연을 일치달라 옥소 자옹이라 될하에 맑게 읊을진디 지음하리 잇스리라”[1922년 대창서원 간, 『구활자본 고전소설』1(민족문화사 영인, 1993), 5쪽].

26) “옥소는 그대 전세 슈중보빈라 평심 즐기든 바를 었지 이겼느냐 인하야 숙연을 일으니 후일 증험홀때 잇스리라”(앞의 책, 7쪽).

절 수 없다는 거의 체념적 상태에서 남자편의 청혼에 응하고 있다. 만약 여타 기봉류소설에서처럼 초월자에 의하여 예지된 만남이라면 적극적인 자세는 갖지 않더라도 “사이지츠의 무가너하라”²⁷⁾ 식의 자세는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만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의미하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옥소의 조화력이라는 등식에서 보면, 옥소는 그들의 금생숙연을 이룰 매체로 기능한 ‘초월적 신물’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을뿐더러 그들의 인연도 천정적이다. 그러나 앞의 기봉류소설에서처럼 옥소가 남녀 결연의 매체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숙연의 당사자인 남녀에게 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연 과정에서도 구체적 시현이 없었다는 것은 옥소의 서사적 성격에 의문이 제기된다. 곧 초월적 물건이자 남녀 결연의 매체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옥소의 이러한 사정은 재합 때에 보다 확연이 드러난다.

앞의 기봉류소설에서 남녀주인공의 재합도 초합 때와 마찬가지로 신물에 의지하고 있다. 즉 초합의 매체가 되었던 신물은 그 자체에서 역할이나 기능이 종식되지 않고 신이력을 발휘하여 어떤 사정에 의하여 분리되었던 남녀를 재합케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재합 매체로서도 초합 때의 초월적 신물로서의 성격과 기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옥소계소설」에서의 옥소도 분리된 가족의 재합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기봉류소설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 때의 옥소는 신이력을 가진 초월적 신물이 아닌 서도가 부·자, 모·자의 관계임을 상호 확인하는 매체에 불과한 일상적 信標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테면 神物이 아닌 信物이다. 「옥소계소설」에서 이산된 가족의 재합 과정을 보면 주인공이 부모를 찾는 것이 중심 과제이고 부부의 재합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 전자가 성취되면 후자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런데 주인공과 그의 부모는 서로 생면부지이기 때문에, 만나는 그 자체보다 상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저간의 사정을 막연히나마 알고 있는 모자 간의 만남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나 부자 간에는 서로 생존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실체 확인이 더 절실한 형편인데,

27) <금강추월>, 앞의 책, 12쪽.

옥소가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 이 때의 옥소는 일상적인 존재로서 상호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지표적 기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강>에서 옥소는 ‘강능추월’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뒤에 부자 상봉에서 이춘백이 옥소의 이 글귀를 보고 상대가 아들임을 확신하게 된다든지,²⁸⁾ <옥>에서 장언경이 옥소를 보고서야 옥소를 본 자가 아들임을 알게 된 것,²⁹⁾ 그리고 <금>에서는 옥소를 둘로 나누어 서로 가지게 하여 뒤에 부자가 만났을 때 각자가 지닌 옥소를 내어 完合함을 보고 상호 실체임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결구되어 있다.³⁰⁾ 이러한 사실은 옥소가 초월적인 물건이기보다 일상적인 물건으로써 상호 실체를 확인하는 지표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기봉류소설은 ‘奇逢’이라는 유형적 명칭이 암시하는 대로 남녀 주인공의 초합과 재합의 기이함을 서사화한 것으로 기봉을 기봉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매체이다. 그러므로 그 매체는 신이력을 지닌 초월적 신물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성격으로써 작품상에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옥소계소설」에서의 옥소는 그렇지 못하다. 앞에서처럼 남녀 결연의 매체로써 충실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자간의 실체를 확인하는 지표적 기능을 함으로써 ‘초월적’ 이기보다 ‘일상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옥소의 서사적 성격과 기능이 기봉담소설에서의 매체의 典型性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그렇게된 사정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작가가 애당초부터 기봉담구조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기왕의 소설인 <월봉기>(또는 <소운전>)를 저본으로 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기봉담소설의 구조를 원용, 재구합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월봉기>(또는 <소운전>)는 해적에 의한 가족의 이산과 재합이라는 현실

28) “승상이 보매 분명한 강능추월이라 일곡을 부니 더사매 이 소리를 듣고 즉시 필마로 촉진중에 뛰어들어…”(앞의 책, 74쪽).

29)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그더 쇼성을 듯고 차자왔거니와 그 옥소를 잠간 구경코져 호노라 사람이 이에 옥소를 받들어 드리니 부마 밧아 자세히 보니 엇지 석일 주귀의 물건을 모로리오…”(앞의 책, 64쪽).

30) “노인이 그 옥소를 둘에내어 양인을 호나식 주어왈 일후 옥소 완합호는 날에 부주상봉호리라…중략…부시 부지불각에 진가를 모르고 옥소를 니여 한디 더어 보니 경직에 완합하여 완연한지라”(앞의 책, 70~76쪽).

적 문제를 서사화한 작품이다. 따라서 재합 매체로써 기능하고 있는 '나삼'³¹⁾도 字意 그대로 비단저고리에 불과한 지극히 세속적 물건이다. 이러한 내용의 것을 바탕으로 기봉담구조에 어울리게 일대의 신물획득 및 결연모티브를 앞에 첨가, 재구한 것이 「옥소계소설」이다. 이를테면 「옥소계소설」은 저본이 된 작품의 서사구조 앞에 일대의 결연담을 첨가하여 서사를 확대하면서 신표적 기능을 가진 일상적 성격의 나삼을 신물적 성격인 옥소로 대체, 결연 및 재합의 매체로 기능케 하도록 결구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매체의 성격 및 기능이 나삼도 아니고 옥소도 아닌 그런 것이 되면서 다른 기봉류소설에서의 매체의 전형적 성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3. 이대와 영웅담구조

「옥소계소설」의 전반부가 일대(주인공의 부친)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었다면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대(주인공)가 주체가 되면서 그의 영웅적 삶을 그리고 있다. 이를 영웅의 일생의 틀에³²⁾ 맞추어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명문거족의 후예로 탄생하다(출생).
- (나) 태어나자마자 모친과 헤어져 남에게 의탁되다(시련).
- (다) 부모의 원수를 갚고 이산된 혈육과 재회하다(복수·가족과 재회).
- (라) 중원을 침공한 외적을 평정하고 부귀를 누리다(무공·부귀).
- (마) 부인과 더불어 백일승천하다(죽음)(〈옥〉에는 이 대목이 없음).

이상에서와 같이 「옥소계소설」의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되었던 해적의 내습을 주인공이 겪는 시련의 계기로 삼으면서 그의 영웅적 활약상과 입신양명을 서사화한 것으로, 영웅담구조의 일반적 전형과 대차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영웅소설에서 군담은 비중 높은 흥미소이자 영

31) 金玆·거문고 등도 있으나 재합의 매체로 주로 기능하는 것은 '나삼'이다. <월봉기>(또는 <소운전>)에서의 나삼의 서사적 기능은 저본이 된 중국소설 <나삼>의 그것과도 일치하며 <소학사전>이나 <봉황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2) 조동일, 영웅의 일생-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10(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및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대 출판부, 1985) 참조.

웅소설답게 하는 중요 모티브로 기능함은 주지하는 터인데, 이런 사정은 「옥소계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의 해적 퇴치와 국회(중국)에서의 외적 격퇴라는 두번에 걸친 군담은 전투 장면이나 전법 등이 박진감있게 그려져 있어(특히 후자에서) 독자들에게 소설적 흥미를 더해 주기 때문이다.

영웅소설의 전반부는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 과정이, 후반부는 공업 명훈을 이룩하는 활약상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다.³³⁾ 따라서 영웅소설에서 서사적 중추는 주인공의 '시련' 과 '투쟁'이라 하겠는데, 그러면 이에 주목하여 「옥소계소설」의 영웅담구조로서의 실상을 보기로 한다.

「옥소계소설」에서 시련과 결부된 적대자는 해적이다. 해적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안겨준 자이다. 그는 내적으로 귀임하는 주인공의 부모를 습격하여 부부를 이산케 하고 주인공을 모친과 헤어지지 않을 수 없게 한 자이다. 이런 점에서 해적은 주인공의 가정적 적대자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적대자이기도 하다. 왕권까지 넘보지는 않았다는 사실에서 <조웅전>의 이두병이나 <유충렬전>의 정한담·최일귀 같은 그런 국가적 차원의 적대자까지는 아닐지라도, 무고한 양민의 재산을 탈취하고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賊徒들이다. 따라서 국록을 받고 있는(職銜이 巡撫御使임) 주인공으로서는 가정적 원한 관계가 없더라도 소탕해야 할 입장이고 그런 대상이다. 주인공의 해적 소탕에 군사 삼천 명에서 차출된 정병 오백 명이(<강>에서), 전장한 관속 수백 명이(<옥>·<금>에서) 동원되었다든지, 주인공이 해적 소탕의 공로로 병부상서(<강>에서), 예부시랑(<옥>에서), 이조참의(<금>에서)가 되는 국가적 차원의 포상을 받았다는 것은 해적이 결코 주인공의 가정적 차원의 원수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국 주인공은 전반부에서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되었던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개인적인 복수는 물론 사회적 악도 제거한 셈이다. 그런데 서사는 여기서 종결되지 않고 공간이 중국으로 확대되면서 중원을 침공한 변족과의 대결이라는 또 다른 갈등이 전개된다.

여기서 변족은 주인공의 시련과는 무관한 존재이자 일차적 갈등에서의 적대자인 해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의 갈등이 지속적으

33) 서대석, 앞의 책, 53쪽 참조.

로 발전되는 데서 소설적 흥미와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것은 주지하는 터이다. 그런데 서사적 공간을 중국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주인공의 시련과도 무관할 뿐더러 일차적인 적대자와 그 성격이 판이한 또다른 적대자를 설정하여 주인공과 대립·갈등하게 한다는 것은 구조의 비약으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갈등의 지속이나 구성의 긴밀성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적 가치를 반감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작가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둔 듯 이를 주인공의 부친 탐색 및 상봉과 연계시켜 인과성 있게 결구함으로써 앞서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있다.

주인공은 일차적 대결을 통하여 목적인 바를 성취하였지만, 아직 그에게는 미해결의 과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곧 부친을 찾는 일이다. 그런데 그의 부친은 해적들에 피습되어 표류하다가 정착한 곳이 국내가 아닌 국외(<강>·<금>에서는 중국, <옥>에서는 안남국)이고, 게다가 가족들도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애당초부터 주인공은 부친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만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宋朝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간 전장에서(<강>에서), 사신의 일원으로(<옥>·<금>에서) 중국으로 가게 됨으로써 뜻하지도 않았던 부자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테면 그의 중국행은 부자 상봉의 소설적 복선이라 하겠는 바, 이를 좀더 확인해 보자.³⁴⁾

<강>에서, 촉국의 승상이 된 이춘백은 촉왕과 더불어 천하를 도모하고자 송국을 침공하여 장안을 점령한다. 화급해진 송조정은 신라에 청병하고 이운학이 자원하여 송국에 들어가 대원사가 되어 촉군과 대치한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부자간의 대결이다. 운학은 이춘백이 '턴신'이라 격찬할 정도로 뛰어난 무술력을 구비한 데다, 그의 옥소 소리에 촉군이 전의마저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춘백은 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가 부자 간임을 알고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강>은 주인공의 부친 탐색 및 상봉과 영웅성 발휘가 병행 처리되면서 소설적 갈등도 종식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34) <옥>의 경우는 부자가 중국에서 상봉하여 귀국한 후 3년 뒤에 송국이 결안의 침공을 당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장소남이 자원, 대사가 되어 출병하여 구하는 것으로 결구되어 있어 부자 상봉과 이대의 중원에서의 영웅적 활약과는 계기성이 없다. 이는 중원이 부자의 만남의 장소에 지나지 않을 뿐 장언경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공간이라는 데 말미암는다.

것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중원에서 영웅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한 원인 제공자가 그의 부친이라는 점이다. 부친(이춘백)이 없었다면 촉국의 송나라 침공은 물론 주인공의 해외 원정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의 경우를 보면, 중국 사신으로 간 정소청은 중국에서 한림학사의 벼슬을 하고 있는 부친(정덕현)을 옥소를 매체로 하여 극적으로 상봉한다. 그러나 부자는 천자의 만류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원의 신하가 되어 가족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살게된다. 이때 호왕이 중원을 침공하자 주인공이 자원하여 대원수가 되어 호군을 격퇴하고 호왕의 항서를 받는 등 영웅성을 유감없이 과시한다. 주인공이 중원에서 영웅적 활약을 하게된 것은 국적을 중국으로 바꾸었기 때문인데,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부친이다. 결국 부자 상봉은 그 자체의 서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주인공의 영웅성 과시의 무대가 중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전 장치로도 기능한다 하겠다.

이상에서처럼 「옥소계소설」은 일차적 갈등에서 미해결로 남아 있었던 부자의 상봉문제를 이차적 갈등과 결부하여 해결하거나(<강>의 경우), 그 계기로 삼는(<금>의 경우) 것으로 결구함으로써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갈등을 유기적으로 접맥시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작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대자의 성격 및 공간적 배경 등에서 전·후 갈등 간에는 서로 대립적이면서 구조적으로 소원하다는 인상은 그대로 남는다.

이것은 「옥소계소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사정이라 하겠다. 「옥소계소설」의 저본이 된 <월봉기>(또는 <소운전>)는 해적과의 대결과 그 퇴치라는 단일한 갈등만으로 구조화된 작품인데, 여기에다 중원을 침공한 변족과의 대결이라는 또 하나의 갈등을 첨가·재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곧 기왕의 갈등구조에다 새로운 갈등을 첨가함으로써 소설적 구조가 영웅담 구조로 변모되면서 주인공의 영웅성은 더욱 부각되고, 의미지향도 저본과는 달리 「옥소계소설」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구조의 정체성

앞의 논의에서 보인 바와 같이 「옥소계소설」은 아버지와 아들, 곧 이대에 걸친 이야기이자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따라 유형을 달리 볼 수 있는 작품이

다. 이를테면 「옥소계소설」은 주인공을 아버지로 보면 그들 부부의 기이한 만남과 분리, 그리고 재합을 서사화한 작품으로서 '결연 → 분리 → 재합'을 구조적 핵으로 삼고 있는 기봉류소설과 일치하며, 주인공을 아들로 보면 그의 영웅적 일생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시련 → 시련 극복과 무공 → 부귀획득'이라는 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일치한다. 따라서 「옥소계소설」의 구조적 정체성 문제는 작품이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기봉류소설이냐, 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웅소설이냐 하는 것에 귀착된다.

우선 작품의 제명에 주목하면 「옥소계소설」은 기봉류소설로 인식된다. 소설에서의 제목은 독자와 작품 속의 내용을 매개하는 촉매이자 작품을 대표하는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제목만 보면 그 작품이 지닌 주제와 의도, 내용적 특성 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옥소계소설」의 제명이 <강릉추월>(또는 <옥소전>)·<옥소기연>·<금강취유> 등에서와 같이 신물명이나 신물명 뒤에 '기연'을 붙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들이 신물에 의한 남녀결연을 문제삼는 기봉류소설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심는다. 그러면 「옥소계소설」이 기봉류소설인가 하는 물음에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한다.

「옥소계소설」이 기봉류소설이라는 입장에서 연구한 양혜란은 여타 소설 유형과의 연관성을 대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봉류소설이 갖는 특징과 존재 의의 몇 가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영웅소설과 대비, 언급한 대목이 있어 관심을 끈다. 그는 기봉류소설에서 남녀결연은 군담류소설 등에서와 같은 수단적·장식적 의미로만 국한되지 않고 작품에서 핵심적인 비중과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고전소설에서 주종을 이루는 두 제재가 군담과 남녀결연이라 볼 때, 군담류소설에서는 군담이 爲本이고 기봉류소설에서는 남녀결연이 爲本이 되면서 주제의식도 달라진다고³⁵⁾ 하였다. 이는 기봉류소설과 영웅(군담)소설의 변별적 기준을 제시한 견해이기도 한데, 그러면 「옥소계소설」은 남녀결연과 군담 중 어느 것을 위본으로 한 작품일까? 주인공을 아버지로 보면 양혜란의 주장대로 이들 작품의 '위본'은 남녀결연이고, 구조 또한 기봉류소설의 유형적 기저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인공이 될 수

35) 양혜란, 앞의 책, 190쪽.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된다.

소설, 나아가 이야기 문학에서 주인공이라 함은 사건을 주도하는 자질을 가지고 서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동인물protagonist을 가리킨다. 그런데 「옥소계소설」에서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해적의 피습을 당할 때까지는 행위의 주체자로서 서사를 이끌고 있는 자는 아버지이지만, 그 후에서부터 서사가 종결될 때까지의 사건은 아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옥소계소설」에서의 중요 갈등은 해적의 작난과 변죽의 중원 침공인데, 이것이 이대에 의하여 해결·극복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더욱이 <강>에서 이춘백은 측나라의 재상이 되어 송나라를 침공함으로써 한때이긴 하지만 적대적 인물로서까지 행세하고 있다.

한편, 「옥소계소설」을 「옥소계소설」답게하는 중요한 모티브는 아들의 중원에서의 무공담이다. 그런데 주인공을 아버지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아무런 작품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옥소계소설」은 중국소설의 변안적 한계를 극복치 못한 그런 작품이 되고 만다. 「옥소계소설」의 저본이자 <나삼>의 변안작인 <월봉기>(또는 <소운전>)는 도적에게 피해를 받아 부부가 생사조차 모르고 사경을 넘는 것과 복종의 자식이 원수의 손에 양육되어 나삼으로 인연하여 친부모를 찾고 원수를 갚는 기구한 인생의 곡절을 설파한, 인정적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³⁶⁾ 이러한 내용에 일상적 물건인 나삼을 초월적 물건인 옥소로 대체하면서 서두에 남너지연모티브를 첨가, 재구하였다고 해서 작품적 의미가 저본의 그것에서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정은 이 작품의 주인공을 아들로 볼 수밖에 없게 하는데, 주인공이 아들이라는 것은 군담이 위본이 되면서 구조가 영웅소설의 유형적 기저와 일치한 작품임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옥소계소설」은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남너지연을 문제삼은 기봉류소설이 아니고 아들의 영웅적 일생을 문제삼은 영웅소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옥소계소설」의 구조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이며, 작품의 의미지향 문제도 이러한 전제에서 논의·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36) 서대석, 앞의 논문, 208쪽.

IV. 「옥소계소설」의 의미지향과 작가의식

소설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주인공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생산자인 작가의 의도이기도 한 것으로 이는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서 구현된다. 「옥소계소설」에서 영웅적 인물로서의 주인공의 행위의 목표는 두 가지에 귀착된다.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대사회적 악을 제거함과 동시에 원수를 갚고 부모를 찾는 일과, 중원을 침공한 변족을 격퇴하는 일이 그것이다. 해적의 소탕 및 복수와 부모 탐색은 「옥소계소설」의 저본인 <월봉기>(또는 <소운전>)에서 주인공이 지향한 행위의 목표이기도 하다. 작가가 기왕의 작품을 저본으로 하되 그것과는 다른 구조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때는 저본과는 다른 나름의 메시지를 담으려 하고, 창작 또한 그런 의도에서 행해진다. 「옥소계소설」의 작가도 이에 다름 아니라 판단되는 바, 그러므로 이 작품의 궁극적 의미는 중원을 침공한 변족을 격퇴한 주인공의 행위와 결부하여 논의될 수밖에 없다.

우선 개별 작품에서 주인공의 중원 원정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강>

- 송나라가 촉국의 침공을 받다.
- 위기에 처한 송천자가 신라왕에게 구원대장으로 이운학을 요청하다.
- 신라왕은 국혼(이운학과 공주와의 혼사)을 들어 주저하다.
- 이운학이 중원의 구원을 거절하면 인국에 嗤笑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자원 출정하다.
- 이운학의 무술력과 그가 자기 아들임을 알게된 蜀將 이춘백은 촉왕으로 하여금 항복케 함으로써 전란은 평정되다.
- 이운학은 송나라의 부마가 되어 신라와 중원을 왕래하면서 부귀를 누리다.

<옥>

- 걸안이 송국을 침공하자 송황제가 親征하다.
- 장소남이 국왕에게 순망치한할 염려를 들어 원정을 자원하다.
- 송황제는 걸안군에 포위되어 항복할 위기에 처하다.
- 장소남은 대군을 揮動하여 걸안군을 격퇴하고 송황제를 구하다.
- 장소남은 평복후가 되어 부귀를 누리다 귀국하다.

<금>

- 부친을 찾은 정소청이 황명에 의하여 고국의 가족을 초취하여 중원에서 살다.
- 정소청은 표기장군으로 제수받다.
- 호왕이 마걸을 대장군으로 삼아 중원을 침공하다.
- 천자가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나 조정 대신 중 그 누구도 나서지 않다.
- 정소청이 자원 출정하여 호군을 격퇴하다.
- 정소청이 청능후가 되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침략한 쪽은 변족이고 침략을 받은 쪽은 중국의 정통 왕조이다. 우리 민족이 대국으로 인식·대우한 나라가 적의 내침을 받아 자력으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복 직전에 있는 것을 우리 민족의 영웅이 원정하여 격퇴·평정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금>의 경우는 주인공이 중원의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원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방인인 정소청이 자원 출정하였다는 것은 원정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옥소계소설」은 변족에 의하여 멸망될 뻔한 중국의 정통왕조를 우리나라 사람이 원정하여 구원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에 함축된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의 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구현하려 했을까 하는 점인데, 이를 우선 '事大'냐, '主體'냐 하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대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우리의 종주국이니 마땅히 도와 주어야 한다는 이를테면 소국의 신하로서의 의무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 의미는 이런 기회에 공을 세워 중원 천자의 총애도 받고 천하에 이름도 드날려 보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라 하겠다. 한편 주체적 측면에서 보면 주인공의 원정은 중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중원에게서 우리의 영웅적 기상을 떨쳐 민족적 우월성을 과시하자는 국가적 차원의 것에 궁극적 의미가 있다 하겠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주인공이 우리나라도 아닌 그것도 중국의 정통 왕조인 종주국을 구원한 것을 두고 민족적 우월의식이니 주체의식이니 하여 민족적·국가적 차원에까지 격상, 운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비단 「옥소계소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이른바 '해외원정군담소설'로 명

명된 일군의 작품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작품적 의의나 가치와도 유관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³⁷⁾ 그런데 다른 작품들은 차치하고 「옥소계소설」에만 한정지어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주목되는 대목이 주인공의 원정 명분이다.

<강>에서 송황제의 요구에 국왕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자 이운학은 “중원에 구원을 거절하면 인국에 치소가 만”³⁸⁾을 것임을 들어 자원하고, <옥>에서 송국의 위기를 들은 장소남은 송국의 위기가 “순망치한홀 염려 적지아니”³⁹⁾함을 들어 자원한다. 송 황제의 파병 요구에 그 이유야 무엇이든 선뜻 응하지 않는 국왕의 태도나 인국의 嗤笑 때문에 응하는 이운학의 태도, 그리고 중원과 우리는 순망치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원의 몰락을 그대로 두면 우리도 망한다는 장소남의 생각 등을 미루어 볼 때, 결코 중주국에 대한 종속국의 의무감에서 출정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달리 말하면 중국을 事大的 차원에서가 아닌 交隣의 차원에서 도운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사실은 「옥소계소설」의 궁극적 의의나 그것을 구현한 작가의식을 ‘민족주체적’ 차원에서 운위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영웅소설은 그 형성 시기에서부터 해체기인 근대전환기까지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고전소설의 한 유형이다. 영웅소설의 출현 동인을 두고 여러 측면에서 개진되고 있으나 그 중의 하나가 임병양란기의 시대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즉 양란을 통하여 민족적 수모를 겪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시대의식이 민족의식과 결부되어 영웅소설의 출현을 자극하였으며, 또한 작품상에 그러한 의식이 내밀화되었다는 것이다.⁴⁰⁾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무대나 등장인물이 중국적이면서

3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지식산업사, 1988), 480~481쪽; 이영신, 앞의 논문, 110쪽; 권순궁, 신유복전과 주체의식의 한계, 『벽사이우성선생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여강출판사, 1990), 562~564쪽; 신태수, 『하충영웅소설의 역사적 성격』(아세아문화사, 1995), 410쪽; 정상진, 장인결전 연구, 『한국문학논총』 12집(한국문학회, 1991)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여기서 조동일·이영신은 해외군담류 전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권순궁·신태수는 <신유복전>, 정상진은 <장인결전>에 국한된 논의이다.

38) 앞의 책, 64쪽.

39) 앞의 책, 77쪽.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의 초점이 송·명으로 대표되는 중국 정통왕조의 보호에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표현매체만 다를 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소설을 쓴 꼴이 되었다. 소설이 허구적 산물이고 따라서 인물·사건·배경 등이 실질적이 아닌 가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과는 하등의 역사적 관련이 없다는 것은 주지하는 터이다. 그러나 우리 의식을 구현하면서 인물 및 무대가 중국이라는 외피에 씌워져 결구되었다는 것은 소설이 허구라는 인식 이전의 문제이다. 이는 봉건적 미몽에 사로잡힌 작가의 소중화의식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민족이니 주체니 운운한다는 것은 緣木求魚에 다름 아니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주지하듯 고전소설의 해체기라 할 수 있는 근대전환기를 전후한 시기에 인물·배경·사건 등을 자국화하면서 서사 공간을 확대하여 주인공이 중원이나 일본 등에 원정하여 영웅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무공을 세우는 일군의 작품들이 등장되었다. 특히 서유영의 <육미당기>는 신라·당·일본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결미 부분에서 주인공(김소선)이 당으로부터 신라에 돌아온 후 변경을 침공한 왜구를 격퇴하고 나아가 일본으로 쳐 들어가 강호를 함락시키고 일본왕의 항복을 받아 귀국하는 일본정벌담이 설정되어 있어 작가의식면에서 중국 원정 작품과는 또다른 의미를 시사하는 작품이다.

마치 바꿀 수 없는 속성처럼 중국으로 설정된 고전소설 무대의 자국화 현상은 조선 후기의 애정소설 및 세태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호응되어 사대부계층이면서 반중세적 사유를 가진⁴¹⁾ 서유영의 <육미당기>가 창작 유포되자 이의 영향 하에서 여타 해외원정군담류가 형성되지 않았나 보아진다. 게다가 해외원정군담류의 일부 작품의 형성 시기를 1910년을 전후로 상정할 때,⁴²⁾ 이 시기는 근대전환기로서 이인직의 <혈의 누>와 같

40) 박성의, 『한국고대소설론과 사』(집문당, 1986), 200쪽 참조. 물론 <유충열전> 등 일부의 작품은 당쟁으로 인하여 실세한 계층에서 그들의 권력회복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서대석, 군담소설의 출현 동인 반성, 『한국고전소설』(계명대 출판부, 1980), 200쪽] 戰後의 민족의식만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도 있다.

41)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3쪽.

42) 다만 <육미당기>는 1863년에 창작된 작품(장효현, 앞의 책, 12쪽)으로 제외되나, 나머지 작품들은 판본 사정이나 내용 등에서 신작구조설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신유복전>의 경우 고전소설이 성행하던 근대전환기에 형성된 신

은 친일적 성격의 신소설 뿐만 아니라 애국계몽의 의식을 담은 역사·전기류도 나왔다. 이 중에서 1907년과 1908년 2년 사이에 신채호·박은식·장지연 등의 계몽사상가들에 의하여 형성된 역사·전기류는 비록 그것이 구조적 형상화가 미흡하고 평면적 서술이 많기는 하지만⁴³⁾ 민족주의적 이념을 구현한 작품들인 바, 이들도 해외원정군담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짐작된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해외원정군담소설의 작품적 의미나 작가의식이 무엇이든 간에 무대와 인물을 중국식으로 설정한 관습적 관례를 버린 그 자체는 근대적 민족주의로의 의식이 전환되는 추세와 연관되어 있음은⁴⁴⁾ 부인키 어렵다. 「옥소계소설」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의 궁극적 목표가 漢族으로 대표되는 중국 정통 왕조의 보호에 있었다는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근대전환기라는 역사적 시점을 전후한 때의 문학적 현상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기왕의 영웅소설과는 다른 그 무엇을 구현해 보겠다는 작가 나름의 의식에서 형성된 작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품의 의미지향과 작가의식에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주인공의 원정을 통해 중국의 정통왕조만이 아닌 우리 민족도 보호하면서 우리의 영웅적 기상을 증원에까지 펼쳐 민족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 「옥소계소설」의 의미지향이며, 작가의식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보아진다.

V. 결론

문학적 소종래·서사구조·의미지향 등이 거의 일치한 <강릉추월>·<옥소기연>·<금강취유> 세 작품을 편의상 「옥소계소설」이란 제명으로 하나로 묶어 형성과정, 구조, 의미지향과 작가의식 등에 주목하여 일별하여 보았다. 본문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코자 한다.

작주소설임이 분명하다(권순궁, 앞의 논문, 556쪽).

43) 서종택, 근대전환기 소설의 이념과 미학적 기반, 『근대전환기의 언어와 문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1), 268쪽.

44) 조동일, 앞의 책, 480쪽.

- (1) 중국소설인 <나삼>의 영향 하에 형성된 이른바 <나삼>계 고전소설은 「옥소계소설」을 비롯하여 <소운전>·<월봉기>·<소학사전>·<봉황금>·<월봉산기> 등 여러 편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 개개가 <나삼>을 저본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고, 번역적 차원에 불과한 어느 한 작품이 나오자 이것이 저본이 되어 나머지 다른 작품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번역적 차원의 작품은 문헌 기록·판본 및 출판 상황·간행 연대 등을 고려할 때 <소운전>과 <월봉기> 중의 하나일 것인 바, 「옥소계소설」도 이 중의 어느 하나가 저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 작품이 독립적·대등적 입장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소운전> 또는 <월봉기>를 저본으로 한 <강릉추월>이 먼저 창작되고 이것을 다소 변개해 놓은 것이 <옥소기연>·<금강취유>라 하겠다. 그리고 세 작품의 형성 시기는 판본 상황, 작품에 사용된 용어, 다른 해의원정군담류의 형성 등과 관련하여 어렵할 때 근대전환기를 전후한 때가 아닌가 추정된다.
- (2) 「옥소계소설」의 짜임을 보면 전반부는 일대(주인공의 부친)가 서사의 주체가 되고 후반부는 이대(주인공)가 서사의 주체가 되어 사건이 전개되며, 구조상으로 전자는 신물을 매체로 만남과 분리, 재합을 서사화한 기봉담구조와 일치하며, 후자는 이대의 영웅적 일생을 서사화한 영웅담구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옥소계소설」은 성격과 지향을 달리하는 두 구조가 조화롭게 통합된 작품이라 하겠다.
- (3) 기봉담구조에서 중핵적 기능을 하는 것이 신물이다. 「옥소계소설」에서 옥소의 성격과 기능이 전후 사정에서 유추한 표면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면 다른 기봉류소설의 그것과 별 다를 바 없으나, 보다 이면을 탐색해 보면 상당한 편차가 발견된다. 초월적 존재가 옥소를 전수하면서 금생숙연을 이룰 신물임을 남녀에게 예지하지 않았고, 옥소가 재합의 과정에서는 神物이기보다 일상적 성격의 信物(標)적 기능을 한 것 등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옥소계소설」의 전반부는 그것의 저본이 된 <소운전>(또는 <월봉기>)의 구조 앞에 일대의 결연담을 첨가하여 서사를 확대하면서 신표적 기능을 가진 일상

적 성격의 나삼을 신물적 성격인 옥소로 대체, 결연 및 재합의 매체로 기능하도록 결구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매체(옥소)의 성격 및 기능이 나삼도 아니고 옥소도 아닌 그런 것으로 되고 만 셈이다.

- (4) 영웅담구조에서 서사적 중추는 주인공의 시련과 투쟁이다. 「옥소계소설」도 부모와 분리되어 시련을 겪었던 주인공이 성장하여, 자기에게 시련을 안겨준 자이자 양민의 재물 탈취를 자행하는 해적을 소탕하고 나아가 중원의 정통 왕조를 넘보는 변족의 격퇴에 영웅성을 발휘한다. 그런데 해적의 소탕은 국내적인 것이고 변족의 격퇴는 국외적인 것인데다 두 적대자(세력)의 성격 또한 판이하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적과의 대결 및 그 퇴치라는 단일한 갈등만으로 된 저본(<소운전> 또는 <월봉기>)의 구조에다 주인공의 해외 원정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첨가·재구하였기 때문에서이다. 따라서 전·후 갈등 간의 유기성이나 긴밀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작가는 일차적 갈등에서 미해결되었던 주인공의 부친 탐색 및 상봉을 해외 원정과 결부하여 결구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 (5) 「옥소계소설」 구조의 정체성은 이 소설이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기봉류소설이나 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웅소설이나 하는 데 귀착된다. 작품의 제명, 결연 매체, 주인공 부모의 결연·분리·재합 등에 주목할 때 기봉류소설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중심 갈등이 아들에 의해 주도, 극복되면서 아버지는 주변적 인물로서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들의 중원에서의 무공담은 「옥소계소설」을 「옥소계소설」답게 하는 결정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옥소계소설」은 아들의 영웅적 일생을 문제삼은 영웅소설이라 하겠다.
- (6) 「옥소계소설」의 의미지향 및 작가 의식은 중원을 침공한 변족의 격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주인공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생산자인 작가의 의도이기도 한 것으로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점, 그리고 작가가 기왕의 작품을 저본으로 하되 그것과는 다른 구조의 작품을 창작할 때는 저본과는 다른 메시지를 담으려 하고 창작 행위 또한 그런 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이다.

변죽의 내침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중국의 정통 왕조를 우리의 영웅이 원정, 구원하였다는 것은 '사대'나 '주체'나 하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 사대적 측면에서 본다면 종속국으로서 종주국에 대한 당연한 의무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런 기회에 무공을 세워 천자의 총애도 받고 천하에 이름도 드날려 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작품에 구현된 주인공의 원정 명분 및 근대전환기를 전후한 시기의 여러 문학적 현상 등을 감안하면 중원의 보호라는 사대적 차원에서만 운위할 것이 아니다. 곧 「육소계소설」은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가 송·명으로 대표되는 중원의 정통 왕조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왕의 영웅소설과는 다른 그 무엇을 구현해 보겠다는 작가 나름의 의식에서 형성된 작품이며, 그러므로 작품의 의미지향도 중국의 정통 왕조만이 아닌 우리 민족도 보호하면서 우리의 영웅적 기상을 중원에까지 펼쳐 민족적 우월성을 과시하자는 것이라 하겠다.